

세기말 문학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

평론집 《상황과 인간》에서 《가짜의 진실, 그 환상》까지

김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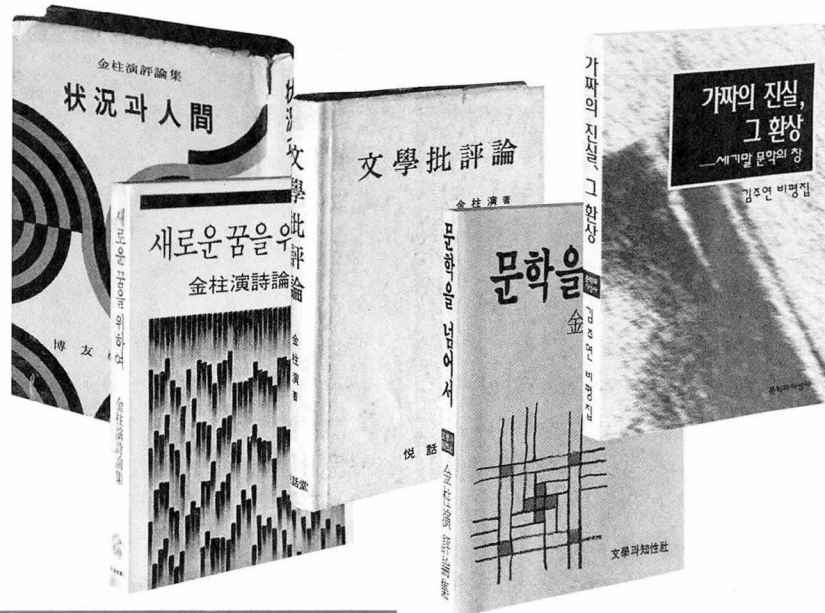
숙명여대 교수 · 독문학

평론집이 또 나왔다. 이런 나의 표현이 아마도 조금쯤은 시니컬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사실이 그렇다. 잘 팔리지도 않는, 그렇다고 해서 그 영향력과 위력이 놀라운 책도 아닌 책을 벌써 아홉번째 찍어내고 있는 자신이 못한 지식인, 그것도 날이 갈수록 문자의 힘이 빠져가고 있는 시대의 문학인으로서 헛된 사위행위의 주인공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뜨고' '터지는' 일만이 '쓰고 읽는' 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인간'을 넘어서기 위한 몸부림

물론 나의 자조의식이랄까 하는 것은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매체의 화상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원인은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배경으로부터 기인할 것이다. 크게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자리하는 문학의 위치와 기능에 대한 회의와 무력감, 작게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감회가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말할나위없이 우리 문학인들이 공통으로 부딪치는 문제인데, 후자의 경우 그 뒷맛이 짝지 않다. 이런 기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경박해가는 사회, 경박해가는 문화, 경박해가는 독서 풍토 속에서 나를 포함한 모든 문학비평 행위가 지니는 뜬금 없는 진지함이 공연한 에너르기의 낭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가뜩이나 종이값도 비싸다지 않은가!

이런 착잡함 때문에 사실 나의 평론활동 33년, 그리고 평론집 9권의 세월을 되돌아본다는 일은, 밖에서 상상할 지도 모를 어떤 뿌듯함이나 성취감만으로 충만한 것이 못 된다. 물론 보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감사한 마음이야 더더욱 가득하다. 되돌아보면 첫 평론집 《상황과 인간》(박우사)을 내놓았을 때 가장 보람과 감사가 넘쳤던 것으로 기억된다. 첫 평론집 《상황과 인간》은 69년 버클리어에서 볼 수 있었다. 이 해 11월 10일 발행된 책은 당시 버클리어에 유학 중이던 내게 출판사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소설가 박태순군이 부쳐주어 볼 수 있었다. 책이 왔다는 소식 - 여러 권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우체국에



나의 평론집에는 '인간'이라는 말이 늘 화두로 등장한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인간'에 매달렸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것은 '인간'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었다. 총체적 인간학인 문학의 보다 높은 원리를 갈구하던 나의 평론은 세기말 문학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이다.

와서 찾아가라는 소식이었다 - 을 받고 버클리어의뱅크로프트 웨이를 한달음에 달려내려가 우체국에서 처음 책을 찾던 때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담배를 물고 있던 소위 '저자근영(著者近影)'은 어찌 그리 멋있던지! 겁 없는 문학청년기, 내 나이 29살 때였다. 이 책 서문을 지금 다시 들춰보니 이런 말이 적혀 있다.

"대체 인간은 얼마나 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얼마나 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늘 나의 관심이 되어왔다. (...) 세계의 이원론을 인간 내부에서 찾고 그 감동과 극복을 모두 인간 그 자신의 능력 - 눈물의 능력, 웃음의 능력을 통해 찾아보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의 자를 가지고 오랜 혼란의 굴레에서 탈출하고 싶다. (...)" 이 책이 나온 뒤 나는 이 서문을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때마다 감탄했던 것 같다. 스스로 생각해도 제법 괜찮은 말이라고 여겼던 것일까. 특히 "세계의 이원론을 인간 내부에서 찾고 그 감동과 극복을 모두 인간 그 자신의 능력"에서 찾아보겠다는 진술에 나는 스스로도 매우 대견해 했고 때로는 감동까지 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신뢰했고, 신뢰하고 싶었던 그 '인간'에 대한 생각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너무나도 바뀌었음을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그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무엇보다 그 '인간'들의 하나인 바로 나 자신이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뀐 것이다. 30년 동안 내가 깨달은 것은 '인간 내부'에는 앞서 말한 그런 능력들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발견은 내 문학과 인생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

인간에 대한 절망, 그 결과 자연스럽게 다가온 초월적 존재 즉 신과의 만남은 1983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해에 나는 《새로운 꿈을 위하여》(지식산업사)라는 평론집을 펴내었다. 물론 그때까지 발표한 평론들의 모음으로서, 83년 그 해만의 내 문학을 반영한 책은 아니었다. (그동안 나는 74년 《문학비평론》(열화당), 79년 《변동사회와 작가》(문학과지성사)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제목이

명백히 보여주듯이 그때까지의 내 문학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향해 나가고 싶다는 나 자신의 분명한 지향과 의지를 담고 있었다. 새로운 꿈이란 여기서 무엇이었을까. 책머리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이런 시대를 뚫고 그들을 모두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봉임하려는 시인들의 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다시 나의 꿈을 엮어본 시도이다." 이런 시대란 광주의 비극 이후 계속되는 80년대 초의 현실인데, 여기서도 한결같이 '인간'이라는 말이 화두로 등장한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나는 '인간'에 매달렸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것은 그 '인간'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지금 이해된다.

아무튼 이즈음 신을 만난 나는 정말이지 답답하고 괴로운 지난 날의 한계를 떨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분이었다. 기독교의 문을 두드리고 세례도 받았으며 비로소 성경책도 읽게 되었다. 성경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으나 성경책을 처음 만났을 때의 전율과 감격을 무어라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명색 서양문학을 공부한다는 선생이 나이 사십이 넘어서야 성경 구절들을 읽게 되었다는 부끄러움은 그제나마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의해 가볍게 덮여졌다.

사실 서양문학은 기독교 문화인 헤브라이즘과 그리스 로마 문화인 헬레니즘을 큰 두 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우리나라에 와서 헤브라이즘 전통에 관한 이해가 전공자들에게서조차 매우 미약한 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기독교 문화를 한쪽 바탕으로 한 서양문학계의 현실이 이런 형편이니 한국문학 내지 한국분단의 처지는 더욱 딱한 꼴이었다. 기독교에 관한 지식의 천박함은 말할나위없고, 아예 기독교를 문학의 맞은편에 있는, 반문화적인 어떤 것으로 적대시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총체적 인간학인 문학의 보다 높은 원리를 갈구하던 나로서는 기독교와의 만남은 정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된 형국이었다. 주위의 많은 질시와 오해가 있었으나,

인류박해의 흔적찾기

르네 자라르의 《희생양》을 읽고

박정오 · 이화여대 영문과 강사

이로부터 나의 문학엔 신성과 초월성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도입되었고 세속적인 평면성에 안주하던 비평논리는 입체적인 탄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나 스스로의 판단이다.

‘문학’과 ‘인간’을 넘어서

86년 마침내 《문학을 넘어서》(문학과지성사)라는 이름의 평론집이 나왔다. 제목 그대로 문학을 넘어서고 싶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사마니즘과 한국정신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문학과 종교가 정신의 한 뿌리에 속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문학평론이 마땅히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을 환기시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문학적 감동과 신성》, 《한국문학, 왜 감동이 약한가》 등의 글로써, 문학이 보다 높은 차원을 지향하면서 그 깊은 뿌리를 든든히 할 때 세속적 범주에서 머무는 감동의 피상성을 벗어나 훨씬 활달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고, 나로서는 꽤 힘주어 역설해 보았다. 그 뒤에 나온 《문학과 정신의 힘》(문학과지성사), 《문학, 그 영원한 모순과 더불어》(현대소설사) 등의 평론집들에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이 은밀하게 배어 있을 것이다.

문학은 귀납적인 방법 위에 있게 마련이지만, 종교는 그 유일성의 진리로 인하여 환원론적인 인상을 주기 쉽고, 이 때문에 둘을 관념적으로 맺어준다면 때로 어색하고 그 논리도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즉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이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은 주제이면서 동시에 대상이라는 이 통합적 인식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95년 발행한 《사랑과 권력》(문학과지성사),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가짜의 진실, 그 환상》(문학과지성사)과 같은 평론집은 이 사실을 자칫 잊고 지나가는 세기말 문학현상에 대한 나로서의 안타까운 사랑이다. 인간은 인간을 넘어서는 때, 즉 한계를 눈치챌 때, 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다. ❖

문학비평가로서 출발한 르네 자라르는 문학텍스트에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폭력과 성스러움》(1972)부터는 문화 전반으로 관심의 폭을 확대해갔고, 《희생양》(김진식 옮김, 1982)에서는 문화의 기저에 숨겨져 있는 중추 메커니즘으로서의 희생양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다.

자라르는 희생양의 문화적 의미를 알아보는 출발점으로 14세기 프랑스 시인 기욤 드 마쇼의 글에 주목한다. 페스트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그 원인을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기 때문이라고 돌려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고 학살극을 자행한 일본의 관동대지진의 경우와 너무도 흡사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마쇼가 유대인에 대한 비난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따라서 유대인 박해의 정당성을 믿는 왜곡된 박해자의 시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자라르의 작업은 왜곡된 부분을 밝히고 폭력의 성격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실 많은 신화와 설화는 살아남은 자, 박해한 자의 시각이 들어 있는 이야기다. 적대자에게 이용될 만한 것을 절대 남기지 않는 현대의 박해자들과는 달리, 박해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들의 텍스트는 오히려 박해의 흔적을 찾기에 더 결정적인

희생양에 대한 자라르의

이론은 도식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여지도 있으나, 종교와

신화의 기원에 실제 폭력이

존재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 위기원인을 희생양에게

돌리려는 인간의 자기기만적

요소를 깨닫게 해준다.

자료가 된다.

이때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단계를 자라르는 네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차이를 없애게 된 사회문화적 위기가 발생하면 둘째, 차이를 없애는 범위가 있고 셋째, 희생물로 선택된 자는 범죄 때문이라기보다는 희생양의 표지 때문에 지목되며, 마지막으로 희생양에게 가해진 폭력 자체를 들 수 있다.

자라르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질서는 서로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차이에 근거해 세워진다. 페스트나 친부살해, 근친상간(가족내의 극단적 차이말살)의 경우처럼 차이가 붕괴되면 공동체를 위협하는 혼돈과 위기상황이 초래된다. 이 위기가 박해를 낳는다.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자신보다는 사회 전체나 순위위 보이는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때 비정상인 희생양의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그래서 평균적인 사회적 신분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멀어질수록 박해받을 위험은 그만큼 더 커진다. 민족적, 종교적 분쟁에서 소수집단이 그러하고, 하층계급과 같은 이유로



박정오씨.

위층도 집단박해의 희생물 목록에 든다. 희한하게도 이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을 지배했던 사람들로부터 군중은 아주 쉽게 등을 돌린다.

이러한 희생양에 대한 텍스트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마쇼의 경우처럼 희생양의 결백을 숨기고 있는 경우와 성서의 경우처럼 희생양의 무죄성을 공공연히 밝히는 경우이다. '저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고 하는 예수의 박해 이야기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탈신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인간죄의 보속으로, 자신을 철저한 희생양으로 보았고, 성서의 기록자들도 박해자의 시각이 아니라 박해받는 예수의 입장을 취한다.

희생양에 대한 자라르의 이론은 도식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없지 않으나, 종교와 신화의 기원에 실제 폭력이 존재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위기의 원인을 희생양에게 돌리려는 우리의 행동과 의식 속에 내재된 자기기만적인 요소를 깨닫게 해준다. 성서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도 신선하며, 그리스·아즈텍·스칸디나비아 등 세계의 여러 신화뿐 아니라 마녀제판, 유대인 박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희생양 메커니즘의 흔적을 찾아 해체시키는 그의 통찰력과 해박함은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길러준다. ❖

민음사/A5신/368면/15,000원

